

문재인 전 대표, 민주당 총청 경선 1위

득표율 47.8% 6만645표... 2위 안희정 충남지사 36.7% · 이재명 성남시장 15.3% · 최성 고양시장 0.2%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치러진 민주당 총청원 순회경선에서 47.8%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2위에는 안희정 충남지사(득표율 36.7%), 3위에는 이재명 성남시장(15.3%), 4위에는 최성 고양시장(0.2%)이 차지했다.

1~4위 순위는 27일 치러진 호남 경선과 같았다. 안 지사의 안방 격인 충청 경선에서도 문 전 대표가 절반에 가까운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함으로써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은 더욱 견고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투표소투표와 ARS투표, 순회투표를 합산해 전체 유효투표수 기준 12만6,799표 중 47.8%인 6만645표를 차지했다. 문 전 대표는 투표소투표에서 총 투표수 5753표 중 49.1%인 2827표를 획득했다. ARS투표에서도 총 투표수 12만52표 중 47.7%인 5만7284표를 얻었다. 순회투표에서는 994표 중 53.7%인 534표를 확보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호남에 이어 충청권 경선에서도 1위를 석권한 데 대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내겠다. 이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대선경선 결과 발표 뒤 지지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총청의 자랑스러운 안희정 충남도지사님과 함께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호남 경선에 이어서 제가



29일 오후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총청원 순회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문재인 경선후보(왼쪽)와 2위에 그친 안희정 경선후보(오른쪽)가 손을 맞잡고 있다.

다시 한 번 크게 이겼다"며 "총청에 아주 좋은 후보가 있는데도 정권교체를 위해 저를 선택한 데 대해 우리 대전과 세종 시민들, 충청도민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정권 교체 이후 대한민국을 제대로 개혁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려면 압도적인 대

선 승리가 필요하다"며 "압도적 대선 승리의 힘은 압도적인 경선 승리에서 온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힘을 모아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김정환, 완주군의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완주군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환 후보(사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9일 완주군의회의 브리핑룸을 방문해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정환 후보는 "충북민심과 지역민심을 대변하며 민주당 정권교체의 힘이 되려 한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완주군수, 그리고 지역민과 더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산농협조합장 직무대행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정책위원회장을 지낸 김정환 후보는 단 한 번도 당적을 바꾼 적이 없이 오직 민주당에서만 30년간 몸담아 이번 공천과정에서 경쟁자들로부터 양보와 추대형식의 공천을 받아 화제가 됐다.

김정환 후보는 "팽이질부터 배운 천상 농부이고 선산을 지키는 소나무 같이 지역을 지키며 울곧게 살아왔다"며 "준비된 으뜸일꾼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산, 화산, 경전, 비봉, 운주, 동상 등 6개 면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약 '6X6 으뜸행복 약속'과 각 지역별 공약도 제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주민복지센터와 복지센터 연계한 어르신 돌봄사업 ▲체류형 관광지 육성과 관광농업활성화 ▲6개 면별 농업특화산업육성 및 마을공동체 농식품사업 지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건설과 도시가스보급추진 ▲지역 공동육아·교육 시스템구축 ▲산림유휴토지활용 등 주민필요

인명진 사퇴 선언... 친박 인적청산 물 건너가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29일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 이후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정치권에서는 인 위원장이 당내 주류인 친박계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친박 인적청산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생각 끝에 30일 우리 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를 끝으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소임은 이제 끝났다"며 "이제 자유한국당은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일직선결집해 정권재창출의 대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내에서는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인 위원장이 주도권을 넘겨줄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시점이 갑작스럽다며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한 당직자는 "당내에서는 좀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왜 이런 시기에, 좀 더 해도 되는데 이렇게 발표한 데 대해 논란이 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친박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8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대놓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이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은 인 위원장의 사퇴를 놓고 "친박 청산이 실패한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국정농단과 대통령 파면에 대한 책임 통감과 철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친박 청산도 이뤄내지 못하고 당명을 바꾸는 등 끝수만 부러왔다"며 "친박 청산과 개혁의 기치를 들고 자유한국당에 들어온 인 위원장이 친박계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높은 벽을 실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도 "인 위원장이 보수세력을 건전하게 재건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만큼 퇴진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만기출소' 김경준, BBK 의혹 남긴채 미국행

박범계 "김경준, BBK 진상규명 나선다고 전해"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김경준씨(사진)가 29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투자자문사인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40분 인천국제공항 발 LA행 비행기를 이용해 출국했다. 탑승 전 취재진이 소감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을 했고, 주가조작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2009년 징역 8년, 벌금 100억원 형을 확정받아 천안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징역형은 지난 2015년 만료됐지만 검찰이 벌금형의 시효를 연장시켜 그동안 노역장에 유치됐다. 김씨는 수감 중 징역형 기간과 검찰의 벌금형 시효 연장이 모두 위법하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해 형량을 다 채우고 전날 출소했다.

미국 국적인 김씨는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은 외국인인 강제 추방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전날 천주교도소 내에 있는 외국인보호소로 옮겨져 관련 심사를 받았다.

전날 김씨를 면담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김씨 역시 출국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김씨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박 의원에 BBK 사건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박 의원은 "한 시간 정도 김씨를 면담했는데 첫 마디가 '정권이 교체돼 진상이 밝혀졌으면 좋겠다'였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 전 대통령도 주가조작 유죄'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씨가 진상 규명을 위해 본인이 나설 것이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적절한 언론사와 인터뷰도 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며 "정권 교체 후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안철수 싱크탱크 '내일' 선거법 위반 논란 '활동 잠정 중단'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싱크탱크 격인 사단법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논란에 결국 19대 대선 기간 동안 잠정 활동을 중단기로 했다.

내일은 입장문을 통해 "19대 대선 선거

운동기간에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활동을 잠정중지하고자 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공식 유권해석을 통해 "이 단체가 현재 안 전 대표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일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지정기부금단체는 수입을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기관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내일은 사실상 안 전 대표 캠프의 정책을 보좌하는 성격이 강한 단체로, 안 전 대표의 후원회장인 최성용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홈페이지에도 안 전 대표의 발언, 공약, 경선 일정 등이 게시돼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운동'으로 해석한 것이다.

내일은 "공직선거법 등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오해의 소지를 빚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대상단체 자격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우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에서
행복한 교육 공동체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육지'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